

장애물 헐기

모든사람은 속했습니다 • 모든사람은 봉사합니다

2015 봄 (우정 그룹의 영향)

소속의 본능적 언어

by 토마스 부갈트

웨스턴 신학교, 홀랜드 미시간

(편집장 말: 우정집에선, 지적/발달 장애우 여섯 젊은 신학도들이 한 집에서 독립생활 기술을 키우며, 작업을 갖고 큰 공동체와 의미있게 참여하며 삽니다. 멜리사 콘넬 디렉터에 의하면, 친구 거주자들은 사회 기술과 자존감을 크게 갖는다고 보고하며, 신학생들은 더 큰 신학적 깊이를 알아서 교회와 지역의 목회적 필요들을 찾아간다고 보고합니다.)

이번 학기의 첫 친구 거주자 아만다 크라트는 히브리어 신학과목을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신학교에선, 히브리어를 대화형 플라스틱 칼과 창으로, 짐승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인형들, 작대기들, 돌들, 집들, 여러 음식들 등으로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단어들을 보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맞습니다. 또한 단어들을 듣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를 그들에게 명령하면 학생들은 그 명령을 따라 반응합니다.

아만다는 언어 좋아해 배우기에 열심입니다. 대화형 접근방식으로, 나는 그녀와 수용할 수있다고 울생각합니다. 내가 알지못하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모든사람의 배움에 참여하고 있는지, 교실이 여러 사람의 능력들에 사회적 끊임없이 교류하는 곳인가 하는 것이다.

한 날은 교실서 나는 명령을 주고 있었다. 많은 생각없이, 난 히브리어로 학생들에게 “의자에 서시요”하면서 곧 나는 다리가 불편해 넘어지는 아만다를 생각하였다. 내가 돕기도 전에, 학생들이 그의 양편 손을 잡아 의자서 서게 도와주었고 후에 앉게하였다.

나는 이 단순한 동작으로 인해 감동되었다. 학생들이나 아만다도 생각못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하였다. 내겐 이 사건은 성육신의 일로, 예수님이 우릴 부르시는 나뉜진 사람들의 장벽들과 편견들을 무너뜨리는 공동체의 그림자였다.

교실안 아만다의 이 경험은 신학교육의 장벽들을 더 넓게 생각하게 되었다. 누구를 오게할까? 무엇이 기준일까? 무엇이 더 깊은 배움의 장을 만들까? 아만다의 참여와 우정 집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뭘까를 더 깊게 생각하는 도전이 되었다.

주제들 Themes

2015 봄—한 우정 그룹의 영향.

이번 호에선,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우정 그룹의 성인들을 더 큰 교회의 생활에 참여할까를 다뤘다.

2015 여름—장애를 갖은 대학생들.

어떻게 우리 교단들은(CRC and RCA) 장애를 갖은 대학생들이 믿음과 훈련에서 자라는데 참여하게 할까?

4 월 10 일 까지, 여러분의 경험들을 꼭 보내주세요.

이메일: mstephenson@crcna.org • tdeyoung@rca.org

우정안에 관계 꽃피움

장애물 헐기의 요구로 사람들이 그룹 홈에서 교회와 관계에서 경험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보내줌에 감사하다. 클래라 디론대는 이를 잘 정리하였다: “우정은 장애를 갖은 자들에게 하는 사역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사역이다. 우리 서로 성경을 배워 주의 사랑을 알고 느끼며, 사랑안에 자라고,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아간다. 우리 서로 돌보며, 웃고, 울며, 기도하며, 노래한다. 말을 못하는 어떤이들은 가슴벅찬 포옹들과 아름다운 몸짓들을 한다. 그래요, 주님은 우정 그룹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훌륭한 관계들로 나아가길 축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관계들로 부어주신 축복들의 좋은 하이라이트들.

• 누가 우리 레신교회에서 일어나는 좋은 것들을 얘기해보라고 한다면, 난 모든것들 중에 당연히 우정 관계를 말할것이다. 커피 브레이크, 남성의 삶과 친구 그룹 성경공부는 다 목요 저녁에 모이는데, 그들은 음식을 나누며 시작하면서 웃고 농담하고 아름답게 서로 교류한다. 몇사람은 교회에 소개후 친구로부터 우정 그룹에 초대되어 가족이 된후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한 젊은 청년은 일년전 9월에 우정 그룹에 와서 1월에 교회에 등록후 봄에 헌금위원을 한다. 이번 12월엔 우정 그룹이 두번째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인도하여-성경을 읽고,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였고 특송을 불렀다. 이것은 가장 활발한 것중의 하나인 우리교회서 경험한 아름다운 예배였다. 이 예배는 자연스레 많은 박수가 넘쳤고 아멘들로 충만하였다!

-파멜라 벨에쥬, 레신 CRC, 레신, 위시콘슨

• 아이오아 오렌지 시티의 많은 교회들 사람들은 우정 그룹에 참여한다. 거기 제일 개혁교회는 우정의 오래된 조력자로서 여러 친구들은 교회의 일에 자원하여 그릇짜기, 안내위원, 후보 준비와 주일 성인 학교 참여한다. 한 친구는 교회의 네브라스카 선교여행에 동참하였다. 오렌지 시티 그룹의 여러 친구들은 마우리스의 제일 개혁교회의 주일 성인학교 반들을 인도하며-토의 질문들을 읽고 사람들을 기도에 초대하며-예배와 교회의 다른 축제들에 참여하였다.

-댄 디브리스, 제일 개혁교회, 마우리스, IA

• 월말 CRC 에선 두개의 우정 그룹이 다른 두밤에 모인다. 몇 돕는자는 우정 그룹에 참여하는 친구들을 도우며, 이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여하고 나누며-어떤 경우엔 친구 그룹의 멘토를 하기도 한다. 어떤 이는 우정 그룹은 시작하여 지금은 그들 교회인 월말 CRC 로 부른다. 매 가을 월말 지역의 교회들은 연합하여 장애 개몽 주일 예배를 갖는데 몇 친구들은 찬양팀으로 봉사하곤 한다. 우정 사역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하고 사랑하게하는 사역이다.

-클래라 디몬데, 월말 CRC, 월말, MN

• 남 그랜드빌 CRC 는 현재 16 명 성도들이 처음으로 우정 그룹에 동참했다. 더 많은 친구들이 정기적으로 주일예배에도 참석한다. 그들은 이 교회가 자기들 교회로 알고 예배에 교회의 사교적일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친구들은 정해진 곳에 앉아 있지 않고 교회당 여러자리에 찾아가 예배를 드린다. 그들중 두명은 안내위원으로, 다른 사람은 어린이 예배 자원봉사자로 봉사한다. 매년 우리 친구 그룹은 교회 수요 저녁 만찬을 주도하는데, 자원해서 봉사하며 청소를 한다.

—몰리 부룬스팅, 남 그랜드빌 CRC, 그랜드빌, MI

• 친구들은 매년 강림절 예배 촛불 점화에 참여한다. 우리 이 전통을 여러해 동안 강림 준비위원회는 친구 그룹 모이는 저녁에 만나서 함께 준비해오고 있다. 그들의 기쁜 노래들이 인도함과 강림절 예배들의 촛불 점화 위원들로 부탁해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소중한 것으로 우리 그들이 이 귀한 예식에 참여 않음을 상상할 수가 없다.

—마트 벌부루겐, 제일 CRC, Sioux Center IA

• 지적 장애를 있거나 없는자가 함께하는 사역, 하나님의 영원한 친구들의 정기 모임에, 우리 발렌타인 날 저녁/댄스를 갖는다. 한 130 여명의 친구들, 봉사자들,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이 이 행사에 참여했다. 그 후, 그것에 참여하지않는 교회 성도들 중 몇이 내게 함께 참여한 이 행사의 주요성을 말했다: “ 난 이런 참된 기쁨의 증인됨이 언제였는지 모릅니다!” “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네요. 거긴에 서로 용납함이 있었고 서로 도우는 깊은 맘들이 있었네요. 그런 아름다운 행사에 참여함에 감사드리네요.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종종 생각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데 그의 나라에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것을.

• 믿음 개혁교회에서 만나는 우정 그룹의 몇 친구들은 그들 교회 믿음개혁이라 부른다. 그들은 예배와 다른 행사인 음식제공이나 성가대 순서들에 참여한다. 다른 몇 친구들은 믿음의 제 2 의 사역지인 등대에서 예배를 드린다. 엔드 보언덜란 한 멘토는 말하기를, “주일 아침 성인 학교 교실서, 항상 친구 그룹에 참여하는 두명의 여성들이 나를

보면서 내일 친구 그룹에 갈것인가를 물었다.” 등대 친구들은 노래나 주일 성인학교 반이나 여름성경학교에 자원함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니엘레 밴스투라, 믿음 개혁교회, 록 벨리, IA

온전한 통합을 향한 여정

by 케를 혼덜드

플리무스 하이츠 CRC, 그랜드 래프츠, MI

이십년 이상 전부터, 우리 우정 반은 화요 저녁 성경공부로 시작하여 우리 교회 가족의 지적 장애 가진 자들의 온전한 통합을 장려하는 통로로 발전됐다.

처음엔, 거진 그룹 홈에서 왔었고 교회나 예배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애기함에 관심이 거진 없었다. 기도나 성경공부때 올바른 행동이 사람들에게겐 새로웠고 많이들 멘토들 통해서 배웠다. 이런 여정에서 친구들은 어떻게 예배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드리는지, 멘토들을 존경하며 대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몇은 세례를, 몇은 공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여 교회의 정식회원이 되었다.

우리 목사님은 온전한 통합이 일어나는 환경이 생기도록 도구역할을 하였다. 첫 단계로 년중 친구 예배를 주일 오후에서 아침으로 바꾸었다. 해가 거듭할수록 친구들은 예배에 큰 비중의 일을 하였다. 시간이 감에 따라, 예배를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의 숫자가 증가하였다. 우리 목사님은 모든 예배자들이 능력이나 장애나 지적 능력에 관계없이 다 소중함을 확실히 만들었다. 이런 자세를 회중이 꺼안았고, 친구들은 잘 반응하였다.

현재는 주일 아침에 약 20 여명 친구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그들은 멘토들과 함께 교회 여러자리에 앉아있고 혹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낸다. 이런 환영의 자세와 축복들은 분명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축복이며 서로 걸 모습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인격체로 존경하며 보는것 은 아름답다.

봉사하며 봉사를 받음

by 톰 벤 원거덴

친구 사역들, Grand Rapids MI

2014, 6 월부터 우정 사역들의 총디렉터로 섬기면서, 나는 우정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개인이나 가정 또 교회 전체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를 들음의 축복을 가져오고 있다. 내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이 이 우정 사역을 통해 교회에 축복으로 사용함으로, 믿음의 공동체안에 비 장애우나 장애우나 관계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함을 보고있다.

지적 장애를 갖은 친구들은 교회의 공적 일에 함께함을 보는데-즉 주일예배 환영시간에, 예배위원회에, 주일 예배인도나, 회중기도나, 집사나 장로들로 봉사, 유아부, 주일 학교 보조교사, 성가대 노래, 커피담당, 파킹랏 도움-여러가지다. 지적 장애를 지닌 친구들로서 교회에 온전히 참여함으로, 모든 회중이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함께 나누는 능력으로 축복되고 더 넓어짐을 가진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사람이 지적 장애가 있든 없든지 간에 서로 삶을 의미있는 교제로 축복하셨는데, 서로 기도로 돕기, 각 자의 가족들과 일들, 친구들과 믿음, 기쁨들과 문제들에 진정한 관심으로-모든것들이 서로에게 진짜 중요하기에. 나는 계속 강조하기를 우정 사역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단지 함께 걸어만가도 말이나 행동으로 강한 용납, 은혜, 사랑, 기쁨을 준다. 이런 깊은 관계들은 종종 교회들이나 개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들 줍니다.

우정 사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동체들이 우리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은사나 능력들이 나눠짐이 더 의식해 감을 알아간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사들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단지 봉사하는 것 뿐 아니라 섬김을 받고,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에 우리 은사들을 나눔으로 주의 형상들을 더 잘 보는 것이다.

편집장의 말 우정의 말들

이번 호는 독자들이 그들 교회들이 어떻게 성인들이 우정 그룹으로 교회에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간단한 우정 사전이다:

우정 그룹, 클럽, 성경 공부, 반: 그룹들의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그러나 목적은 같다: 지적 장애를 갖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며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중심요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 모임이 이 패턴을 따른다: 그룹 찬양, 기도, 성경 교훈, 성경 교훈의 일대일 토의, 공예 시간과 다과. 우정 모임들의 중심은 관계 양식이다. 아이오와 슈 센터의 우정 그룹 지도자, 케티 슈러월스 말에 의하면, “우리 모든 친구들은 다 각기 다른 배움의 등급이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들은 그들 옆에 있는 사람을-그들의 멘토-자신들을 돌봐주기에.”

친구들: 우정 그룹의 지적 장애를 갖은 회원들이며 그들 멘코들의 친구다.

멘토들: 우정 그룹들의 회원들과 함께하는 친구이며 그들이 친구다. 많은 멘토들은 우정 그룹의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참여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참여한 후엔 주는것 이상으로 받고 있다고들 말한다.

—마크 스크븐슨

© 2015 장애 사무처, 북 미주 개혁 교회와 미주 개혁 교회.

장애물 헐기는 북미주 개혁교회서 학기별로 발간한다, 1700 28th St. SE, Grand Rapids, MI 49508-1407, and P.O. Box 5070, STN LCD 1, Burlington, ON L7R 3Y8; and by RCA 장애우 사무처, 4500 60th St. SE, Grand Rapids, MI 49512-9670. 마크 스트븐슨 목사, CRC 장애우 사무처 디렉터(888-463-0272; mstephenson@crcna.org); 테리 디영 목사, RCA 장애우 사무처 코디네이터(616-541-0855;

tdeyoung@rca.org), 장애물 헐기를 함께 편집함. 이 자료들은 필요한 대로 사용 가능함.

북 미주 개혁 교회와 미주 개혁 교회와의 공동 협력 사업
www.crcna.org/disability • www.rca.org/disability